



21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鎮)에서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당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베이징 특파원 공동취재단

한일 외교장관 회동 해결 실마리 못찾아

강경화-고노, 베이징 회담...강제징용·수출규제 입장차 여전 일, 28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전망...지소미아 연장 영향 주목

한국과 일본의 외교수장이 20일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깊어가는 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지는 못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여부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강 장관과 고노 외상은 이날 8월 들어 서만 두 번째로 회담 테이블에 앉았다. 지난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에서 만난 이후 처음이다. 당시 일본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기 직전이어서 상당히 냉랭한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됐다.

이날도 크게 상황이 달라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결국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고,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맞대응해 갈등은 악화일로로 걷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가까이 손을 잡을 것"이

라며 대화기조를 천명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갈등해소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반전은 없었다.

강 장관이 지난 6월 일본에 제안한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방안을 토대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을 찾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노 외상은 전혀 호응하지 않은 채 '한국이 국제법 위반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모두 해결됐으며,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은 청구권협정에 반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강 장관은 또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며 수출규제 당국간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고노 외상은 '협의대상 아니다'는 취지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

졌다. 고노 외상의 이런 태도로 볼 때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배제조치는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한일 외교 당국간 대화는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일본 외교당국이 수출규제 문제 등에서 거의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이제 10월 22일 일왕 즉위식을 주목하고 있다.

이때의 한일관계 분위기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지만, 설령 최악의 상황이라도 정부는 축하사절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 이날엔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이런 이벤트가 한일관계 회복의 계기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연합뉴스

청 "사실과 다른 의혹 청문과정서 검증될 것"

'조국 논란' 첫 공식 입장...청문회 통한 '정면돌파' 천명

청와대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데 대해 "합리적 의혹 제기도 있으나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설과 가능성은 모두 검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에도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비비비가 가리자는 '정면돌파' 기조를 공식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에 신속히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 동생이 위장 이혼했다는 주장, 딸이 불법으로 영여논문 제1저자가 됐다는 주장, 그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했다는 주장 등 모든 의혹은 진위 여부가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수석은 조 후보자가 과거 신병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은 기자

조국 "딸 부정입학 가짜뉴스·비판 수용"

가족 논란에 처음 입 열어... "성찰 기회 삼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딸이 등재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입학을 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가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직접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장관 후보자로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입을 열었다.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들고 취재진 앞에 선 조 후보자는 "더 많이 질책해 달라"며 "앞으로도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아무 리 혹독해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이 꾸짖어 달라", "깊이 성찰하고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딸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다는 것을 밝혔다"며 "이런 질책 역시 따갑게 받아들일 것이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지금껏 저와 제 가족의 부족한 점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한 대한민국 법과 제도개혁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이번 과정을 성찰의 기회로 삼아 긍정적 사회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은 기자

청, 이르면 오늘 '지소미아' 연장 여부 발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결과 등 검토 후 발표할 듯

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NSC(국가안보보좌관회의) 논의 등을 거쳐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

장 거부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청와대는 연장 여부 발표를 앞두고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등 막판까지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3국 협

력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2일에는 김차장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난다.

비건 대표가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주된 논의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지난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을 고려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는 카드로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아 청와대는 막판까지 연장 여부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한미일 중심의 동북아 안보협력은 중요한 사안인만큼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은 기자

"도쿄올림픽 현지캠프, 안전 고려 재검토"

박양우 문체부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1일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의 안전문제를 고려해 일본 현지 훈련캠프 설치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쿄올림픽) 훈련캠프 등은 대한체육회와 다시 이야기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문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며 "우리 선수들의 안전확보는 물론, 도쿄올림픽 자체가 안전올림픽이 되도록 IOC(국제올림픽위원회)나 세계 다른 관계자들과 같이 얘기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박

장관에게 "사전 현지 훈련캠프는 시차 적응과 현지 적응, 컨디션 조절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하려는 것인데 일본은 우리와 시차가 1분도 없고 인근에 있다"며 "안전하지 않다면 굳이 훈련캠프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다른 나라 선수들도 우리나라로 올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에서 내년 도쿄올림픽이 안전할 수 있는지 대해 조사내지 검토를 하기 위해 여가간 프로그램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간사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h3>장성 전원주택 토지매매</h3> <p>* 이제 교통이 최고입니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에서 15분 ⇒ 앞면 15미터 장성 IC, 장성호(담) 1분 (국도도로 12m접) ■ 최고의 전원주택 / 물류창고.사무실 <p>① 300평 - (평당 80만원) - 매가 2억4천만원(용1억5천)</p> <p>② 1,080평 - (평당 70만원) - 매가 7억5천만원(용4억5천)</p> <p>① 장성을 용강리·장성담 옆 (국도도로접함) 1,370평 → 매가가 1억 5천만</p> <p>② 장성을 덕진리·장성담 위 (도로접함) 500평 → 매가가 2억5천만</p> <p>③ 장성을 남면·첨단지구5분 (도로접함) 1,090평 → 매가가 3억5천만</p> <p>④ 담양군 금성면 (메타세콰이어부근 도로접) 1,000평 → 매가가 5억</p>	<h3>상가 매매 [급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문흥동 (6층) 아파트 1만세대 위치 (병원, 대형학원, 한의원, 스포츠, 기타적합) ■ 6차선 도로접 코너변 위치 (전체평수 - 300평) ■ 보증금 5천만 월 400만 임대가능 <p>감정/시세 → 15억 매가 → 7억5천</p> <p>① 상가매매 - 상무지구 메가박스 앞 (7층 중 6층) 보 3천 월 150만(임대가능) ▶ 매가가 2억8천만 (용1억4천8백)</p> <p>② 첨단지구 10층중10층 (상가, 사무실) 보 1천 월50만 (임대가능) ▶ 매가 8천만 (용 3천만)</p> <p>③ 원룸매매 (현대아파트 입구 앞) 용평1C1분, 전대5분 토지 80평 건 165평 (월률9%, 1.5룸6개) 보3천 월수익 500만 ▶ 매가 7억</p> <p>④ 고시원매매 - 조대 후문 3분 토 79평, 건 159평 룠 50개, 월수익 1,000만 예상 ▶ 6억8천만</p>	<h3>경매 교육 [기초, 특수] 전문</h3> <p>★ 경매교육 특수반 모집 ★</p> <p>이제 특수경매만이 큰 수익이 될수있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연필)</p> <p>※ 10억짜리 부동산을 3억에 가능</p> <p>경매교육 하면서 (실전) 바로 (수익창출)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정이 2~3회 유찰 물건 (절반가격) 2. 유치권, 지분, 법지, 개발, 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초급 실전반 - (기초 + 실전) - 무료교육 ② 중급 실전반 - (기초 + 실전 + 특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 지분, 법지, 개발, 절반가격) <p>매주 (월, 수, 토) 개강 ※ 사무실 쓰면서 전문 직업 하실분 (책상, 컴퓨터 → 제공 / 주1회 물건분석스터디)</p>
010-7384-7800	010-6670-9800	